

미술치료 교양강좌가 대학생의 자기성장에 미치는 효과

홍은주·문현영*

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명지대학교 대학원*

The Effect of Art Therapy for University Students' Self-development in the Liberal Arts Programs

Hong, Eun Joo · Moon, Hyun 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ulji University, Gyeonggi, Korea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Art Therapy to be part of Liberal Arts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i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effect after the program. The program was combined with Art Therapy theory and with a practical part for students to have a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self development(ego-identit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subjects were 38 students who were registered in the Art Therapy course at N university. It was a two hour-course and was offered every week. The first 40 minutes of the class were used for explaining Art Therapy theory, and the last 80 minutes were given for practic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index of ego-identity, the index of self-esteem and the index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were used. Frequency, percent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with SPSS 12.0, and a paired t-test was follow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is art therapy program has an effect on the subjectivity and future-confidence of students, which includes the sub-categories of self-identity. However, there was no effect found in the category of self-esteem. Comprehension, which is und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ategory,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fter the program was done. Based on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Art Therapy as a part of the Liberal Arts programs, which incorporates a large number of students, can have a similar effect on people compared to the Group Art Therapy, which incorporates a relatively smaller number of people.

Key words: art therapy in the liberal arts program, ego-identity,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iversity students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훈련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많은 대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중, 고등학교의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은 채, 처음으로 자유롭고 유동적인 대학 체제에 입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은 대학생이 되는 시기에 가장 큰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겪게 한다(김희진 2001; 신혜정 2003). 또한 발달적 전환기 속에서 빛어지는 갈등과 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로, 직업, 대인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등과 관련된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란에 관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황현정 2006).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는 자아정체성 형성을 통한 자아존중감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기 대학시절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통합을 통한 자기 성장이 선행되어야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의 과정을 통해 안정된 정체감의 기반을 형성하여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이 단순한 전공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지혜, 가치 존중, 결단력, 원만한 대인관계, 문제해결력 등의 능력을 갖게 해줄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자기성장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대학 내 학생생활상담소에서 활용되고는 있으나 전체 학생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참여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애(2006)는 자아정체감 발달, 올바른 가치관 발달, 긍정적 자기수용, 목적의식과 자율성 발달을 중심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이미 교양강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험도 있다. 이주희 등(2009)는 건강

한 품성과 가치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교양강좌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올바른 가치관과 자신에 대한 존중과 수용, 통제와 조절의 자기관리,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보여주는 자아정체감과 자신에 대한 주관적 느낌과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대인관계는 대학생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미술은 한 인간의 세계에 대한 자기이해, 즉 자신이 이해하고 바라 본 세계를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조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그림은 그 개인의 연령, 성별, 성장환경, 주변 환경에 따라 그의 심리적 상태와 그가 속한 사회 환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이재화 2004). 이러한 미술이 심리치료라는 요소에 합쳐져 이루어지는 미술치료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미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치료자가 치료목표에 따라 미술 과정에 개입하여 내담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홍은주 등 2008).

위와 같은 미술의 장점으로 인해 언어를 사용한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미술작업은 자주 사용되어왔다(박대령 2003; 성정미 2009; 유정숙 2006; 이지혜 2009). 이러한 미술의 장점을 고려하면 미술치료가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건강한 자아상과 성숙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양강좌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 성장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론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교양강좌로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청년기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나타내는 자아정체감과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인 자아존중감, 원만한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대인관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강좌로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참여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교양강좌로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참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교양강좌로서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참여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하는 것(Erikson 1968)으로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여러 가지 충동, 능력, 신념, 및 개인의 자체발생적인 내적, 역동적인 체계인 바 이는 곧 '자기구조'라고 정의하였다(Marcia 1966). 자기구조로서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자기통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기능들이 역동적으로 체계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Dignan(1965)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발달된 것으로 자기를 묘사해주는 자기상들의 복합체이며 생래적으로 미리 짜여진 어떤 기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에서 추출되고 통합된 자기상이라 하였다.

지금까지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미술치료 선행 연구들 역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연구결과,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며 적응적 자기표현이 증가하고(한유진·전윤경 2009),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이영옥·정여주 2006)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미술치료와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며(이현정 2005; 황혜자·박현주 2004) 안정도와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보고(박은희 2009; 조승희·최외선 2008; 최외선·전미향 1996)하였으며 이들 연구 역시 소그룹 활동의 집단 상담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미술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울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좀 더 개방적인 형태로 교양강좌로서 미술치료 개입을 하는 것은 많은 대학생들을 비용과 시간 면에서 경제적인 접근으로 자아정체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개인이 느끼는 유능함과 중요함, 가치 있다고 믿는 스스로에 대한 감정과 느낌, 생각 등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취나 칭찬, 성공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목적을 향해 나가거나 자신의 가치를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될 때 자존감을 경험 한다(Rosenberg 1965). 일생동안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는 내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 주체성의 일부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 심리상태를 말한다.

최근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정은 대학 사회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어 학업영역, 진로와 취업영역은 학생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이 서구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인지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현실(한상철 2004)에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대학생활에서 있어서 학업과 진로, 취업문제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시기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은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재학생들에게 적응상의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미술치료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미술치료를 통해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우울과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적응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강명희·이수연 2005; 김문숙·조돈구 2007; 오영화·김혁곤

2004; 이은진 2007; 조인희·정여주 2009; 최은영·박경 2008; 최은희·주리에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미술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대인관계, 신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김원경·박정희 2001; 황현정 2006)하였으나 총 8~15회기로 이루어진 8명의 소그룹활동의 집단 상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두 사람 이상의 사회적 상호 작용 관계로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Heider 1964). 특히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는 어느 한 학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고 있어(김기정·이정희 1999)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

지금까지 대인관계와 관련된 미술치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과 마찬가지로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대인관계시 저항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감정표현과 의사소통의 변화를 보고하였다(구상빈·정여주 2009; 이황은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타인 감정 이해와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효과와 대인관계의 변화를 보고(유혜신 2008; 황현정 2006)하였다. 집단상담의 형태에 있어서는 소그룹활동의 집단 상담형태로 이루어졌다.

4. 교양강좌로서의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 감정을 표출하고 내제되어 있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표현과 인식을 통해 조절력을 향상시켜 자아성장의 촉진과 활동을 통한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경험을 하게 한다. 또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보교환의 기회와 서로 다른 행동양식을 경험하고 사고와 감정에 대한 모방적 행동을 통한 보다 나은 대인관계를 학습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내면 감정을 표현하며 내제되어 있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를 인식하며,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찰 및 자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그림의 개입으로 언어적 표현과 사고의 정리를 쉽게 해주며 조절력이 향상되어 자아의 성장, 즉 자아존중감과 자기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미술의 모든 창작품은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았어도 미술은 의식의 검열을 덜 받고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표현에 대해 언어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만 작품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표현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창작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체를 스스로 찾는 과정을 통해 방어가 감소된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딜레마를 표현 할 수 있고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딜레마를 볼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즉, 자신의 내적 심상과 접촉함으로써 자연스런 개성화의 과정이 촉진된다. 청년기 시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인지적 자기인식의 과정은 자기이해와 변화를 촉진시켜 성인으로서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자발적 지원자를 모집하여 소규모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집단미술치료의 형태로(김원경·박정희 2001; 박은희 2009; 유혜신 2008; 조승희·최외선 2008; 황현정 2006; 황혜자·박현주 2004)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대다수의 학생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미술치료 교양강좌를 통해 내면의 돌봄과 심리적 건강을 기대하는 욕구가 있는 대학생의 대단위 참여와 자아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술치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은 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는(박은희 2009; 유혜신 2008; 조승희 2008; 최외선·전미향 1996; 황현정 2006; 형정은 2004) 총 6편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연구들은 특별한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집단 프로그램이었고,

교양교육 강좌를 통한 일반 대학생들 대상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의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강좌로서 시도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은 조금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인간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집단의 소속감, 친밀감, 인간관계 문제들이 완화되었다는 연구들(송명자·이현림 2008; 주은선·현수경 2005), 비폭력대화 모델을 근거한 공감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인간관계와 자신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연구(구자경 2005)가 있었다. 또한 인성함양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도성과 친밀성, 자기능력 지각에 향상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이주희 외 2009)와 ARCS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행동통제와 행동조절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수업 흥미요인 중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구(이숙재·이정화 2008)도 있었다.

위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증진의 연구가 많은 편이며 또한 정해진 수업시간에만 활동이 이루어지고 강사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술치료로 접근하는 교양강좌는 자신이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해 나가며 자신의 시각적 상징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을 경험한다. 미술치료의 이러한 측면은 자발적인 내적성숙을 촉진시킨다. 또한 심리이론을 자신의 내면의 표현과 더불어 이해해 보며 강의 시간 외에 별도로 자신을 탐색하고 정리해보는 자기분석의 과정을 가지므로 자기이해의 시간이 확장되고 생활 가운데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재학생들의 심리 교양수업을 통한 내면의 돌봄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욕구(김경숙 2008)와 더불어 최근 교양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학생들의 자기성장을 위한 교양강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술치료 교양강좌가 대학생들의 자기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인간관계론, 정신건강, 심리학 등 관련과목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론 위주의 강의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대학생들에게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의와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미술치료 실습의 병행을 통한 인지적, 정서적 통합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천안 N대학교 재학생 중, 2010년 1학기 ‘미술치료’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처음 30명씩 두 개 분반으로 이루어져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중간에 수강신청변경으로 인하여 수강생의 변동이 있었고,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여 응답이 쌍(pair)을 이루지 않거나, 응답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을 모두 제외하여 최종 38부의 질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연구적 특성은 전공계열에 있어 인문계열 23명, 상경계열 5명, 예체능계열 8명, 공학계열 2명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32명이었다. 연령은 만 20~21세가 25명, 만22~23세가 7명, 만 24~25세 6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38	
Variables		N	%
Gender	male	6	15.8
	female	32	84.2
Age	20 ~ 21	25	65.8
	22 ~ 23	7	18.4
	24 ~ 25	6	15.8
Major Studies	humanities and social	23	60.5
	economics	5	13.2
	arts and sports	8	21.0
	engineering	2	5.3

2. 방법

1)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실시된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관련 문헌과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교양강좌의 이론 수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론수업 후 실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실습으로는 자기이미지 그리기, 셀프박스를 통해 나를 표현하기, 감정표현하기 등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 개방을 통한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자아정체감을 촉진시키는 기법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미술치료 전문가들(미술치료사 3인, 박사과정 2인)이 참여하였고, 미술치료전문가 2인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2)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방법 및 구성

본 프로그램은 교양강좌를 통해 주 1회 2시간씩 2개 분반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전반 40분은 미술치료의 심리이론을 통해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는 세대 간의 감정, 행동, 성격 패턴과 개인에게 영향을 준 정서상태, 개인의 심리적 발달단계의 이해, 자신의 자아상 정립 등으로 진행하였고, 매회기 심리이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미술치료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실습은 8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도입 시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긴장을 이완하고 미술활동을 전개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한 자신의 그림을 보며 제목(주제)을 정하고 활동과정 중의 자신의 감정의 변화, 형상이 주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성찰 내용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회기 자신의 실습 내용과 심리이론에 대한 교육을 연결하여 자신에 대한 분석 기록지를 제출하였다.

실습 활동 시 Oaklander(1997)의 감정을 다루는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가) 참여 대학생들이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감정에 접촉하도록 격려한다.

나) 참여 대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실

제적 방법들을 제안한다.

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한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라) 다양한 감정 중 이 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느끼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한 느낌 이 들 때 무엇을 하는지 등에 대해 글로 표현하도록 한다.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단계(1~2회기), 중기단계(3~8회기), 후기단계(9~11회기)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초기 단계(1~2회기)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탐색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지각의 태도를 탐색하며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나간다.

중기단계(3~8회기)에서는 자신의 자아의식의 태도가 가족과 주변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영향에 따른 자신의 행동반응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다양한 면모의 자신을 탐색한다. 또한 다양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을 통해 자신이 어떤모습,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한다.

후기단계(9~11회기)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자원을 경험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과 실현가능한 계획을 짜고 미래를 구체화 해 보면서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창의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계획한다.

회기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3) 측정도구

가) 자아정체감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60문항으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 하위 요인과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성은 자기의 주관적 역할 또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 존귀한 개체로서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능력에 대한 느낌의 정도이며, 자기 수용성은 자신의 능력, 재능에 대한 신뢰의 정도이고, 미래확신성은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계획, 목표에의 확

Table 2. Art therapy curriculum in the liberal arts programs

Week	Study points	Practicum topic	Goals
1	Orientation: Course introduction *Pre-test		
2	Understanding of Art Therapy: By using art materials, express one's inner emotions, resolve the underlined tension and conflicts, and seek for self development	Drawing self-image	Self introduction/ Meeting with self/ Self understanding
3	Psychoanalytic Art Therapy: Understand self conflict through conscientizing unconsciousness and strength self power	Squiggle	Relaxing the tension/ Understanding inner desire/ Knowing the Self
4	Analytic psychological Art Therapy: Creative activity is a source of gaining insight for discerning one's situation. Seek for self development by integration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Looking back one's past	Realiz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toward family
5	Person-centered Art Therapy: Positive or negative self image is formed by the environment. Given the proper environment, human beings can develop and handle current and future problems.	Expressing one's feeling	Exploring one's emotion/ Expressing feeling/ Self awareness/ Self openness
6	Gestalt psychology Art Therapy: Properly understand present time and accept the parts of oneself which one has denied before, a person can be integrated and wholly.	Part of oneself: like or hate	Self awareness/ Self openness
7	Materials and Methods of Art Therapy: Based on the types and the methods being used to handle the Art materials, inner psychology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Meeting with inner child	Self awareness/ Understanding a desire
8	Mid-term		
9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stage and search one's relationship with parents when they were children	My past, present, and future	Self discernment/ Self discovery
10	'Attachment' DVD: Understand the formation of self image according to the different attachment types, and how they relate with the surroundings	Where one takes a refuge	Aware of inner desire/ Positive self awareness
11	'Skill of love' DVD: Understand one's communication pattern, and understand positive communication pattern.	A jewel box in my heart	Self strengthening. Self confidence
12	Drawing test 1: Projection test is good for revealing one's conscious and unconscious inner stage. Through this test, one can understand and discern oneself.	A gift for myself	Self strengthening/ Self achievement/ Self efficiency/ Gaining confidence
13	Drawing test 2: Projection test is good for revealing one's conscious and unconscious inner stage. Through this test, one can understand and discern oneself.	My future, Hope tree	Promote one's action Self confidence in future/ Active plan for future
14	Review *Post-test		
15	Final exam		

신성, 진로 및 직업관에 대한 시간적 경과에 따른 희망의 정도를 의미하며 목표지향성은 과업을 수행,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이고, 주도성은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하고 실행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이다. 친밀성은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노출 정도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의 종류를 의미한다. 점수체계는 5등급 평정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아청의 연구에서 문항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95이다.

나) 자아존중감

Coopersmith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SEI)를 한국판으로 표준화 한 것을 기초로 황현정(2006)이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자기비하 5문항, 타인과의 관계 7문항, 지도력과 인기 6문항, 자기주장과 확신 7문항 등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황현정(2006)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 α 는 .92이다.

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검사는 7가지 하위영역의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문선모(1980)가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수정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은 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4문항, 신뢰감 4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등급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황현정(2006)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α 는 .91이다.

3. 연구절차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2010년 1학기(3월2일~6월8일, 중간(8주), 기말고사(15주) 기간 2주 제외)동안 N대학교 학생 교양강좌를 통해 총 13주(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프로그램 회기를 마친 뒤 14주차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검사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처치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대학생에 해당하는 청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 있어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변인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주체성($t=-2.03, p<.05$)과 미래확신성($t=-2.23, p<.05$)에 있어서 교양강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Table 3. Paired t-test of ego identity

Variables	N=38		t
	Pre-test M(SD)	Post-test M(SD)	
Subjectivity	3.48(.64)	3.61(.62)	-2.03*
Self-acceptance	3.97(.77)	3.94(.73)	.41
Future-confidence	3.59(.83)	3.77(.76)	-2.23*
Goal-orientation	3.22(.77)	3.21(.79)	.13
Initiative	3.20(.75)	3.33(.83)	-1.18
Intimacy	3.41(.81)	3.52(.86)	-1.71

* p<.05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표현과 탐색, 자기 분석의 과정이 자기 의지적 과정을 끊임 없이 격려하며 지지한 과정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정신의 심리내적 작용을 실습과

교육을 병행한 미술치료 강의의 통해 인지하고 내적 탐색에 대한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주체성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주차의 자기 이미지 표현을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난 자신에 대한 심리내적 태도와 의식적 태도에 대한 인식과 조절을 경험하였다.

또한 4주차의 감정 표현하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의 흐름과 접촉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통제감을 경험하였다.

5주차의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주변 상호작용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행복과 불행은 삶의 조건이 아닌 삶을 바라보는 내 관점임을 경험하였으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진정한 내 모습임을 인식하는 시간을 경험하였다.

6주차에서는 내면의 어린아이 만나기를 통해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유년기 상처가 삶속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유년기 자신의 상처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내가 되는 정서적 성숙감을 경험하였다.

7주차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자신의 과거로 인해 현재가 존재하며 현재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현재를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자신의 관점을 보다 성장시키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통합하여 자신에 대해 객관화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를 수용하고 인식하였으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자기 판단과 나름의 태도를 갖춰나가 자신이 삶의 주체이며 적극적으로 환경을 지배하며 영향을 미치는 존귀한 존재라는 느낌이 공고히 되어 주체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미래확신성 향상에 영향을 준 것은 프로그램 내용에서 볼 때, 7주차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막연한 미래가 아

닌 5년 후 10년 후로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였으며 미래의 계획을 위해 현재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년, 월, 일 등의 구체적인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9주차에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특별한 상자를 만들고 자신의 외적, 내적 자원을 찾아 채운 후 자신의 자원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 진로, 계획, 목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0주차의 나에게 주는 선물 작업에서는 각자의 삶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의미 있는 시간이며 현재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와 성장하기위한 노력의 모습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자원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스스로의 노력에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주차에서는 나의 미래 소망 나무를 통해 자신의 외적, 내적 자원의 밑에서 자라난 나무를 떠올리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실현 가능한 확실성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갖도록 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탐색하고 체험을 통합하며 자신의 자원을 찾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과 구체화를 통해 실현 가능한 희망을 갖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후 반활동이 미래 확실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김영애(2009)의 현실요법을 적용한 미술치료가 시설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중 주체성과 미래확신성, 친밀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추후 검사 시 긍정적으로 주체성과 미래확신성, 친밀성에 미친 효과가 지속됨을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류정숙(2004)은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6개 하위요인 전체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박하진(2009)의 연구에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자아정체성 하위영역 중 미래확신성과 목표성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현정(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미술치료가 자아정체감 중 자기수용성, 미래확신

성, 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한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2.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자신에 대한 주관적 느낌과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에 있어 자기성장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변인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즉,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대상의 미술치료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Paired t-test of self-esteem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M(SD)	M(SD)	
Self-abasement	3.03(.79)	3.09(.77)	-.73
Relationships with others	3.62(.64)	3.56(.67)	.91
Leadership and the popular	3.32(.77)	3.45(.79)	-1.74
Self-assertion and confidence	3.14(.66)	3.22(.66)	-1.35

자아 존중감 향상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나에게 주는 선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능력, 자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이며 주변 대상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주장성과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존감이 의미있는 주변과의 상호 작용 특히 부모, 형제, 친구 등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는 향상이 어렵다는 연구(김경희 2008; 김지영 2002; 박누리 2005; 이은희·남선미 2003; 탁정미 2004; 최정은·김성천 2006; 하창순 1998)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3. 대인관계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있어 미술치료 교양강좌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 각 하위변인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인관계의 하위변인 중 이해성(t=-2.22, p<.05)에 있어서 미술치료 교양강좌를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Table 5. Paired t-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M(SD)	M(SD)	
Satisfaction	3.14(.81)	3.24(.78)	-1.08
Communication	3.38(.72)	3.45(.82)	-.61
Friendness	3.47(.83)	3.60(.84)	-1.08
Sensitiveness	3.45(1.03)	3.78(1.07)	-1.82
Openness	3.38(.61)	3.55(.77)	-1.37
Comprehension	3.40(.91)	3.69(.88)	-2.22*
Confidence	3.37(.83)	3.45(.92)	-.55

* p<.05

이러한 결과는 교육 강의를 통한 정신의 작용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실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객관화하기 위해 표현된 형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글로 쓰며 자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이해와 포용력이 향상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유혜신(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대인관계 7개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그중 이해성 영역이 가장 의미했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황은(2009)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대인관계 7개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IV. 결론 및 제언

교양강좌를 통해 실시한 본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안정된 정체감의 기반을 형성하여 원만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강좌를 통해 미술치료 프로

그램을 실시해 보고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의 교양강좌를 통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주체성과 미래확신성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따라서 교양강좌를 통한 미술치료적 접근도 일반 집단상담식의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은 적어도 수년간 지속되어야 그 변화가 나타난다(문성주 1991)는 점에서 짧은 시간에 교육과 실습이 병행되어 강사가 충분히 긍정적 피드백을 줄 수 없었던 것도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인지적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으로는 제한적이며 보다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단기간의 프로그램이 아닌 대학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재학생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대인관계의 하위변인 중 이해성에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따라서 교양강좌를 통한 미술치료적 접근도 일반 집단상담식의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대학에서 30~40명 규모의 교양강좌로 미술치료 강좌를 열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의 자아정체성(주체성, 미래확신성)과 대인관계(이해성)를 향상시키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의 정해진 수업시간에 활동하며 강사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는 활동과는 차별화되어 자신이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과 주변에 대한 판단과 나름의 태도를 갖춰나가 삶의 주체로서 자원을 찾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이었던 내면의 심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며 자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이해와 포용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 적절하게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위와 같은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모두 실험집단 38명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효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문헌

- 강명희·이수연(2005)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0(1), 189-202.
- 구상빈·정여주(2009)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위축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9(1), 67-90.
- 구자경(2005)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의 대학교양강좌 활용. 논문집 19, 129-149.
- 김경숙(2008) 음악치료 교양수업 수강생들의 심리적 안녕과 음악치유경험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8) 자살위험 중학생을 위한 생명존중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 자아존중감, 자살위험성,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이정희(1999) 대학생을 위한 대인관계향상 집단상담의 효과연구. 서원대 학생생활연구 17, 17-37.
- 김동연(2001) 미술치료연수회 자료집. 한국미술치료학회 32, 3.
- 김문숙·조돈구(2007)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조형미술논문집 7(2), 221-234.
- 김원경·박정희(2001) 현실요법에 기초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체중조절과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4(2), 249-268.
- 김지영(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문선모(1980) 인간관계 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논문집 19호.
- 문성주(1991) Reasoner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누리(2005)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폭식장애 경향이 있는 대학생의 폭식행동, 자아존중감 및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대령(2003) 발표불안 감소를 위한 계슈탈트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은희(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진(2009) 집단미술치료가 자원 군입대를 앞둔 후기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미(2009) 복교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계슈탈트 심리치료 집단프로그램 개발. 한남대 학제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이현림(2008)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2), 269-291.
- 신혜정(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통제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화·김혁관(200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교육상단연구 13(1), 151-170.
- 유정숙(2006)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들의 회복을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남대 학제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 유혜신(2008) 집단미술치료가 대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이정화(2008) ARCS모형을 적용한 대학교양무용 수업이 자기조절학습, 학습동기 및 수업흥미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학회지 47(3), 423-437.
- 이영애(2006) 대학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서정신과학학회 9(1), 95-104.
- 이영옥·정여주(2006) 신체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아상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16(2), 103-119.
- 이은진(2007)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46(4), 55-76.
- 이은희·남선미(200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적용. 식물인간환경 5(3), 32-42.
- 이재화(2004)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성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희·최명선·박희연(2009)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인간발달연구 16(2), 205-220.
- 이지혜(2009)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2008)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 치료학회지 8(1), 69-90.
- 이황은(2009) 또래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내하(2009) 집단미술치료가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희·최외선(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마음챙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미술치료연구 15(2), 317-338.
- 조인희·정여주(2009) 집단미술치료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9(2), 57-77.
- 주은선·현수경(2005) 대학생들의 인간관계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대학생활연구 21, 23-40.
- 최외선·전미향(1996) 미술기법을 이용한 집단 상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와 동적가족화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3(2), 101-115.
- 최은영·박경(2008) 집단미술치료가 해외거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분노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8(2), 67-85.
- 최은희·주리에(2005)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변화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5(2), 107-121.
- 최정은·김성천(2006)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시설거주 가출 소녀의 자아존중감과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2), 23-52.
- 탁정미(2004) 대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단기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하창순(1998)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2004) 또래상담자 훈련이 또래상담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논총 25(2), 85-99.
- 한윤경(2006)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3(1), 49-72.
- 형정은(200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가족지각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주·박희석·김영숙(2008) 아동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청목출판사. 81.
- 황현정(2006) 대학생의 자기성장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서울신학대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박현주(2004) 미술치료를 적용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학생연구* 32, 77-102.
- Dignan,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 W. Norton.
- Heider, F(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 New York: John Wiley. Counseling 2nd. Brooks/Cole.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Oaklander, V(1997) The therapeutic proces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Gestalt Review* 1(4), 292-317.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